

# 동물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불교학계 최초로 '동물권' 주제 세미나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면 동물에게는 동물권이 있다."

우리에게 아직은 익숙지 않은 개념인 동물권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려 화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이 5월 26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불교와 동물의 권리' 주제 세미나가 그것이다.

인간의 권리만 강조되는 인간중심적인 현실에서 동물의 권리를 다루는 학술행사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동물권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불교학계 세미나라는 점에서 불교생태학의 외연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다.

세미나에서는 신성현 교수(동국대 불교학과)의 '동물해방과 불살생'과 서재영 연구원(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선사들의 삶을 통해 본 동물의 도덕적 지위' 등이 발표됐다. 발표자들은 인간중심주의적 태도를 비판하는 한편, 불살생계(不殺生戒)와 선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동물과 공존하는 자세 등을 통해 불교적인 동물권 정립을 시도했다.

불살생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신성현 교수는 "인간이 동물에 대해 죄의식 없이 잔혹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차별화되는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정도(degree)의 차이일 뿐 종류(kind)의 차이는 아니다"며 "인간과 동



동물권을 집중논의한 불교문화연구원 세미나. 왼쪽부터 조준호 박사(사회), 신성현 교수, 김호성 교수(논평).

**신성현** 인간-동물 경계 뛰어넘어 윤회로 연결

**서재영** 선사상은 모든 생명 차별없이 인식

물을 명확하게 구별할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인간과 침팬지는 98.6%의 유전자를 공유하며, 침팬지와 오랑우탄 사이보다도 가까운 관계라는 것.

신 교수는 "누구나 죽음과 생명의 파괴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만큼, 다른 생명을 가버려 여겨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있

을 수 없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다"며 "동물의 형상을 한 부다가 굶주린 동료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카타>의 한 대목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삶이 종의 경계를 뛰어 넘어 업과 윤회로 서로 연결돼 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계율에서는 불사음계가 제

계(第一戒)였으나, <범망경>에는 불살생계가 제일계가 됐음을 지적하며 "대승불교는 생명을 지닌 존재를 죽이지 않는 소극적 불살생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불교의 윤리적 삶으로까지 확대해 실천하고 있다"고 신 교수는 강조했다.

서재영 연구원은 "최근 도덕적 지위와 권리에 관한 담론은 인간중심 윤리에서 생명중심 윤리로 확장돼왔다는 점에서 동물권은 불교생태학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하며, 선사들의 업과 행장을 통한 선종의 생명사상을 소개했다.

호랑이·이리떼와 함께 생활했다는 우두법승(594-657)이나, 호랑이를 제자로 두었다는 혜충 스님(817-882)의 일화 등은 일화는 동물이 인간과 아무런 차별도 없으며, 동물조차도 진리를 이해하고 정신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음을 일깨운다.

더 나아가 영명연수(904-975)가 암송하는 <법화경>을 염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들으며 감동했다는 이야기, 현사사비(835-908)가 새끼제비 울음을 듣고 "실상을 깊이 논하고 법요를 훌륭하게 설명한다"고 감탄했던 일 등은 동물이 공존의 대상을 넘어 법을 이해하고, 설하는 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선사들 삶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들 간의 본질적 차별성이 해체돼 나타나는 까닭에 대해 서 연구원은 "선의 가치관이 이분법적 가치관과 분별심을 극복하고 중도적 인식을 깨닫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고 밝히며, "선에서 말하는 무념과 무상의 가치관은 사람분별 능력에 따라 존재의 도덕적 권리를 차별하는 종차별주의를 극복할 철학적 근거로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13>

### 표면과 안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꾸짖어 하는 이 말에는 안팎이 일치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대승경전의 진수를 담고 있다고 하는 <법화경>에는 '이사명연무분별(理事冥然無分別)'이라는 말이 있다. 이(理)와 사(事)가 분별이 없다는 말이다. '이(理)'란 사물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존재론적 본질 또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잣대를 나타내는 어떤 준거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의 발현을 '사(事)'라 한다.

즉 이사명연무분별이라는 말은 부처라는 본질인 '이'와 바깥을 인식하는 경계는, 귀, 코 등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경계인 '사'의 구분이 없어지는 깨달음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상과 경계하고 있는 표면의 성질 참으로 요묘하기 짝이 없다.

옛날 어머니들은 정화수를 떠 떠 자식의 성공과 안면을 빌었다. 물과 발이 닿아 있는 부분에서 뜬 동그아니는 모양을 가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면장력이라 불리는 이 성질 물분자끼리 서로 경계하고 있는 것. 안의 물과는 달리 바깥 공기나 사람 같은 다른 물질과의 접촉하고 있는 이 가지는 특이한 성질 때문에 나타난다. 빨래의 때를 없애는 세척제나 세척제 분자가 때의 표면에 작용하여 특이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에 비해서, 개미와 같이 작은 파를 가지는 생명은 안의 부피에 비해서 표면의 면적이 훨씬 크다. 때때로 작은 생명체가 될 수록 표면의 중

## 크기 작을수록 안과 표면의 차이 적어 안팎의 경계 사라졌을 때 본질 드러나

이와 사가 일치해야 뭐든 제대로 돌아간다.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판사판(理判事判)'이라는 말은 이판승(수도하는 스님)과 사판승(점의 행정을 맡은 스님)이 조화를 이뤄야 여법한 수도공간이 이뤄짐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안과 겉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 과연 안은 본질을 표시하고 겉은 본질을 나타내 보이는 창구일 뿐일까.

현대의 과학은 어떤 물질(생명체) 포함해서의 안의 과학에서 겉(표면)의 성질을 탐구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이 보인다. 어떤 물질이라도 안과 이를 싸고 있는 표면으로 구분할 수 있을 때, 많은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을 이루는 '안'의 성질에 비해서 바깥

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사람의 관과 받고 있는 나노 과학은 바로 나노 크기와 같이 물체가 작아질 때 중요하게 표면을 이용하고 탐구하는 것이 이뤄지고 과인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체를 탐구할수록, 안과 표면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과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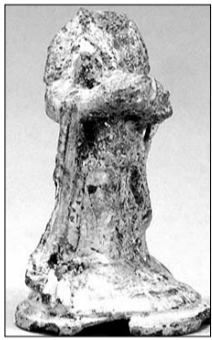
부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 나에게 나타나는 나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라는 느낌이 들 때, 현대과학이 트쳐 주는 힌트를 되새기도록 하자. 좀 자신을 찾는 수행자가 보여야 맑은 얼굴과 투명한 눈, 그리고 자모습에서만이 우리는 자신의 '안' 다르지 않는 진리의 모습을 발견할



그림 : 문병성

## 백제 금동보살상 부여서 발굴 서산 마애삼존불상과 유사

충남 부여 쌍벽리에서 7세기 백제의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보살상(상진)이 출토됐다.



충청문화재연구원(원장 박순발)이 발굴한 이 금동보살상상은 두상이 유실돼 몸통만 남아 있는 대좌포함 5cm 크기의 소형 불상이다.

발굴단은 "X자형으로 교차한 앞쪽의 천의와 U형으로 늘어선 뒤편의 천의 표현양식 등이 서산마애삼존불상(국보 제84호), 공주의당금동보살상(국보 제247호) 등과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며 7세기경 백제의 것으로 추정했다.

## "간화선 세계화 위해 禪-敎 관계 재정립 해야"

김방룡 실장, "돈오돈수론 대중화에 걸림돌" 지적

"간화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간화선과 교학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5월 21일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종표) 춘계학술대회에서 김방룡 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사진)은 '간화선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지능·성철 스님 사상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김 실장은 논문 '간화선과 화엄, 회통인가 단절인가'에서 "간화선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간화선과 수행체계·교리체계와의 의사소통이 절실하다"며 지능 스님과 성철 스님의 선교관(禪敎觀)에서 소통

가능성을 점검했다. 지능 스님이 간화선과 교학의 회통을 강조한 이라면, 성철 스님은 교학을 지해(知解)라 비판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인물.

두 스님의 선교관의 차이에 대해 김 실장은 "시대적 상황이 다른 탓"으로 이해했다. 화엄학이 지배하던 고려시대 간화선을 소개했던 지능 스님은 선교일치를 주장했던 반면, 선종인 조계종단의 중심에 있었던 성철 스님은 철저한 간화선 수행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화선을 세계화해야 하는 오늘날 어떠한 선교관이 바람직할까. 그는 "화엄을 비롯한 교학과의 단절과 간화선만을 통해 구경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성철 스님의 관점은 간화선 대중화·세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성철 스

님이 말하는 동정일여·몽정일여·오매일여의 경지에 든 명안종사를 만나기도 어려울뿐더러 점검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돈오점수를 기치로 내세우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 김 실장의 견해다. 구경각을 이루지 못해도 수행에 철저한 선지식이 간화선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 그는 "조사어록과 화엄사상 등을 통해 구경각의 경지를 객관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덕진 장원전문대 교수는 "간화선과 화엄이 회통하면 간화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지는커녕 오히려 모호해진다"고 반박하며 "간화선사들이 화엄 내지는 교학을 소재로 이용할 뿐 회통하지 않는 까닭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명원 서강대 교수 역시 "성철 스님은 화엄종 제4조인 청량진광의 업적을 15차례나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며 "성철 스님이 선교를 단절적으로 다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 스님!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 목, 어깨, 팔, 다리, 무릎관절, 근육통완화

아시는 분은 다아시는

## 파워봉의 힘!

통증부위에 지그시 눌러만 주세요

— 13년의 기다림 —

13년전 어느날 수녀님들이 사용해보신후 비구니 스님들에게 권하셨고, 스님들의 입소문을 통해 전국 선방에 파워봉이 보급되었습니다.

지금도 스님, 불자님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3년의 기다림과 준비끝에 의료기기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계약금만 입금하시면 제품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농협 072-12-288028 예금주 주문

《선착순 500분한》

**천일기공 연구회**  
후원:골반사랑의료기

주문전화  
**02)432-1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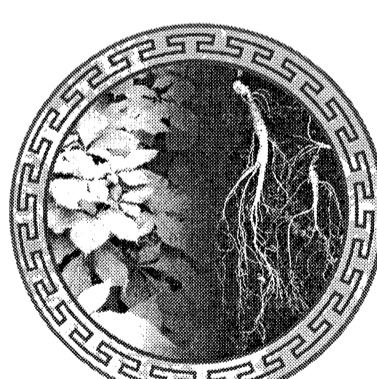
아침, 저녁 20분만 누워있으면 편안해집니다.

누워만 있어도 허리 근통증이 싹~  
말이필요 없습니다.

신개념의료기 - 의료용 자기발생기  
「골반사랑 101」

의료기허가 2120호, 품목허가 05-50호

홈페이지 -  
www.GB101.co.kr 또는 파워봉을 치세요



심마니

# 토종 오가피

## 이것이 명품이다!

연풍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자사 직영 농장인 포천, 영월, 홍성에서 직접 재배한 100% 국산 토종오가피와 경희대 한방연구소에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원료를 ISO 9001 품질인증과 식품위해요소중증 관리기준 HACCP에서 인증 받은 초현대식 시설로 원료에서 제조,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원통시스템을 갖춘 믿을수 있는 제품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책자와 비디오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세요.

祝 : 연풍 토종심마니 오가피 여자프로권투단 소속 김주희 선수의 세계 주니어 플라임급 1차 타이틀 방어전 승리를 축하합니다. 연풍 프로권투단은 한국프로 권투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연풍F&B HYUN PUNG F&B CO., LTD